

멕시코 선교 소식

또 한 여름철이 빠르고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주님은 변함 없이 선교사역에 돕는 손길들을 모아주시고 계획한 일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염려와 걱정되는 일들이 있지만 주님의 보호와 공급 하심을 매번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선후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 Arbol Frondose (울창한나무) 교회

목회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은 늘 무거운 편입니다. 제 사역에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희의 부족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분의 선하신 일들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지치고 아픈 멕시코 교인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영적 활력을 더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잠잠하여진 이후로 가장 많은 세개의 선교팀이 여름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매우 바쁘고 피곤한 시간도 있었지만 좋은 사역의 결과로 즐거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2. Palo Alto (빨로 알또) 지역, 아구아스칼리엔떼스에서 약 1 시간 떨어져 있는 마을에 주일 아침 예배를 정식으로 시작하고 부 사역자인 까를로스 밀안 형제가 맡아서 사역하게 하였고 저희는 방문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 가정이 착실히 예배 참석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9 월 부터 토요 어린이 성경 클럽도 열었습니다.

3. 어린이 사역

14 년전 교회 개척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린이 사역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월-금), 그리고 현재 5 개 어린이 토요 성경 클럽이 각각 다른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봉사의 수고가 참 많습니다.

올 여름에는 특별히 어린이 2 박 3 일 성경캠프와 3 일간에 여름방학성경학교가 각각 있었습니다. 삼일간의 어린이 성경 캠프는 처음으로 실시한 사역으로 준비와 진행에 많은 수고가 따랐습니다. 단기선교팀원과 교사들 주방 봉사자들 모두 40 여명이 140 명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느니라 온 힘을 밤늦게 까지 쏟았습니다. 140 명의 아이들은 저희 교회 아이들과 방과후 프로그램 참가하는 아이들 40 여명 그리고 다섯 마을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요일 어린이 성경클럽을 통해 모은 아이들입니다. 방문한 단기선교팀은 만족한 가운데 내년에도 다시 와서 봉사하기로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에는 110 명의 아이들이 단기선교팀원들과 저희 교회 교사들의 헌신으로 매우 즐거운 찬양과 율동, 인형극, 게임, 만들기, 말씀의 시간 등을 가졌습니다. 저희 울창한나무교회 아이들과 교회 주변에 사는 동네 아이들 이었습니다. 매일 나누어 주는 작은 선물 (물총, 물통, 손전등)로 아이들은 작은 축제에서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사역이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성경캠프)



(여름 성경 학교)

4. 청소년 수련회

저희 사역 도시인 Aguascalientes 에 교회 연합 청소년 수련회를 진행한지 7 년째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 개신교 교회 사역 연합회 회장인 멕시코 현지인 이삭 목사와 협력하여 매년 작은 교회 8- 10 여개 참여하는 수련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중학생 부터 대학생 까지 함께 하는 수련회를 진행하였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11-17 세에 학생부 수련회 (7 월 27-29 일, 110 명 참가)와 18 세 이상 대학, 청년부 수련회

(8 월 24-26 일, 55 명 참가)를 따로 개최하였습니다. 장소는 현재 건축중인 선교센터에서 진행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심는 참으로 귀한 시간들 이었습니다.



5. 선교센터 건축

2014 년 선교센터 부지를 주님이 주신 이후 8 년째 진행되어온 선교센터 (캠프) 건축이 이제 전체 공정의 90% 정도에 다달았습니다. 6 개의 게스트룸과 그 외 여러 마무리 공사가 올해안에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장 공사와 방 분리 작업, 내외벽 마무리 공사, 창문, 바닥, 문, 전기설비 등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ARBOL FRONDOSO 교회가 11 월 중순 설립 15 년을 맞습니다. 지속적인 영적 성숙과 전도와 제자 교육의 열매를 많이 얻도록
2. 어린이, 청소년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잘 진행 되도록
3. Palo Alto 지역 제 2 의 개척교회가 잘 성장하도록
4. 갈렙, 조셉 두 자녀들의 건강하고 믿음의 성숙해 지며 1 년 남은 대학 학부 과정을 잘 마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3 년 9 월 5 일 멕시코 선교사 정명남, 권정희 (갈렙, 조셉)